

## 일본 수출규제/한일 관계 동향(2020.8.29.~2020.9.25)

### 1. 한일 관계 관련

- 9월 24일 한일 양국 정상은 전화 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배상판결, 코로나 19 협력 등에 대해 논의<sup>1)</sup>
  - 일본의 스가(菅) 신임 총리가 9월 24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북한 문제 등에서 한일 연대가 중요하며, 매우 어려운 양국 관계를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한국 측의 대응을 요구
    -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는 “오늘의 회담도 포함하여 다양한 문제에 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하여 향후에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고 싶다”고 강조
  - 또한 북한 피랍자 문제는 스가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지지와 협력을 요구
  -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시한 양국 간 입국제한조치와 관련하여, 사업 관계자 등의 왕래 재개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논의를 가속화하는 것에 의견을 일치
- 가토(加藤) 관방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하여 스가 정권 하에서도 일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sup>2)</sup>
  - 가토 신임 내각부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는 경우 심각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국 측에) 강하게 요구해 왔다”고 발언
  - 그에 더해 가토 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2015년의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을 통해 대응한 것처럼, 이어서 같은 자세로 대응해 나가는 것은 스가 내각에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

1) 「菅首相 韓国ムン大統領と電話会談“厳しい両国関係放置せず”」, 「NHK NEWS WEB」, (2020. 9. 24).

2) 각주 1의 NHK

- 한편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수  
상에게 외교적 고찰과 실행력이 요구된다는 견해도 제기<sup>3)</sup>
- 주간동양경제(2020.9.19.)는 강제징용 문제로 일본 측이 보상하기 어렵게  
한 것은 한국 측이며, 일본의 기술 및 전략적 물자가 한국을 경유하여 제  
3국에 흘러들어간 사태를 방치한 것도 한국 측이라고 주장
  - 그러나 수출규제라는 전술은 좋았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은 보이지 않았으며, 역사문제를 경제, 안보 문제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문제해결로 나아가는 길에서 더 멀어지게 만든 것은 한일 양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
  - 한편 한국 내에서 아베 정권의 종말로 관계 개선을 원하는 견해들이 있  
다고 주장하면서, 북한 피랍자 문제 및 미사일 문제를 공론화하여 동아  
시아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의  
대화과 관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강조
  - 또한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근  
본적으로 바꿔야 하며, 정권이 바뀐 지금 그러한 인식과 실행력이 요구  
된다고 주장

---

3) 「ニュースの核心-新首相に望む朝鮮半島外交の抜本的変革」, 「週刊東洋経済」, (2020. 9. 19).